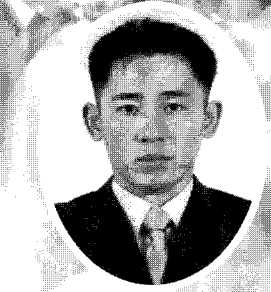


# 육계 · 산란계 사료산업 전망



성 은 일 대리

서부사료(주) R&M팀

## ◆ 머리글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2009(己丑)년의 양계시장의 변화를 돌아봄과 함께 다가오는 2010(庚寅)을 전망해 본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통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해 봄으로써 국내 양계산업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본다.

먼저 2009년의 양계산업을 살펴봄으로 다가올 2010년을 전망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009년 초 전 세계적인 경제악화는 환율의 폭등을 야기 시켰고, 그로 인한 수입 원재료의 값도 동반 상승하였으며 이는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합사료 원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상반기 이후 곡물 값의 안정세와 환율이 하락하면서 사료가격이 인하됨으로 양축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적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비경기의 회복이 늦어짐으로 큰 보탬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2010년의 잠재성장률을 3.8%로 전망하는 자료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2009년의 -0.8%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유(油)가와 가계부채증가, 금리인상등의 요인으로 채감 경기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상반기 양계산물의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육계는 2,173원/kg(대닭), 계란(특란)은 서울기준으로 1,459원/10개이며, 하반기(7~9월)에는 육계 1,970/kg(대닭), 계란(특란) 서울기준 1,288원/10개로 조사되어 지고 있다. 이는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육계는 평균 374원/kg, 계란(특란) 서울기준으로 51원 정도 오른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생산비의 상승부분이 소비자가격에 일부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양계산물의 시세가 소비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변동되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2010년의 잠재성장이 달성되고 생산비 절감이 실현된다면 양계인들의 수익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한 2010년의 양계산업의 전망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 ◆ 본 론

### 1. 육 계

#### 1) 육용종계 입식 현황 및 관련 산업

2009년 9월말 육용종계의 입식현황을 살펴보면 3,705천수로 전년도 대비 3.2% 증가 하였으나, 2010년 3월까지의 생산잠재력은 2009년 동월 대비 3.4% 감소 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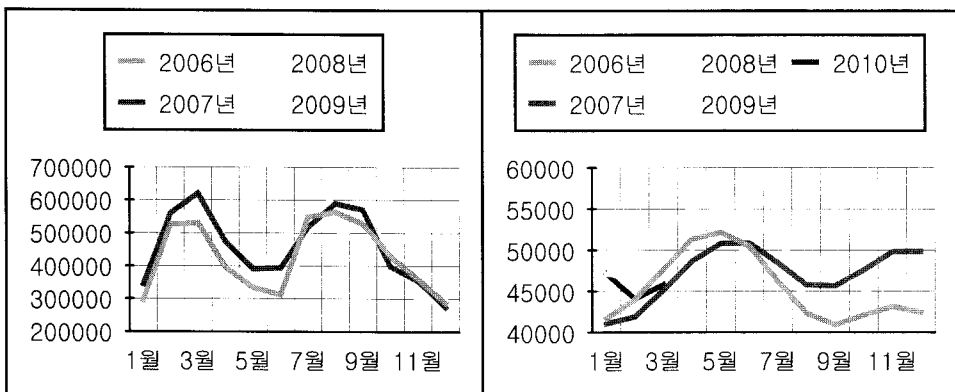
2009년 8월 육용종계사료 배합실적은 2008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육계사료 생산량도 7.5% 증가하였다. 이는 앞선 육용종계의 입식현황 자료와 부합되고 있으나, 2010년 생산잠재력을 고려할 경우 2010년 3월까지의 육계사료 생산량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9년 7월~8월에 입식된 육용종계가 2010년 3~5월의 병아리 생산에 가담함으로써 육계사료량은 증가 될 것이다. 다만 2010년초 병아리 공급량 및 이후 병아리의 품질은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초 종계의 철저한 관리에 따라 결정

되어 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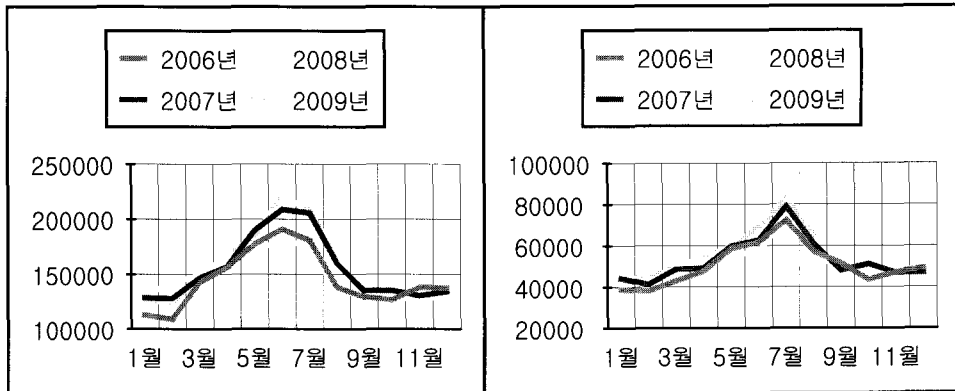
#### 2) 닭고기수급 현황

2009년 9월까지의 도축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9.3%증가하였으며(<그림 2>), 2005년 이후 닭고기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2007: 13.3kg/人). 이와 더불어 미국산 수입우육에 대한 불안심리와 돼지고기 값의 상승에 따른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009년 8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6.7%감소하였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적체된 물량이 대체 수입되면서 다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업체의 비축량은 전년보다 41.6%감소하여 비축 여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증가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 초까지의 계절적 요인 및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다소 위축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도 국내



<그림 1> 육용종계입식현황 및 육용실용계 생산 잠재력, 대한양계협회



〈그림 2〉 육계사료생산실적 및 도축물량,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

육계사업의 발전 및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육의 생산체계의 확립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안전한 식품의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은 이제 기본이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계육의 요리법 및 새로운 가공식품의 연구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2009년과 동일하게 병아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항생제 사용 감소에 따른 육계의 생산성 감소가 발생할 경우 가격의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표면적 가격의 상승 보다는 계열업체와 사료회사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병아리 품질 및 사양관리체계가 개선된다면 육계의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육계사육농가의 실제적인 수익이 개선 될 것이다.

## 2. 산란계

### 1) 산란종계 입식 현황 및 관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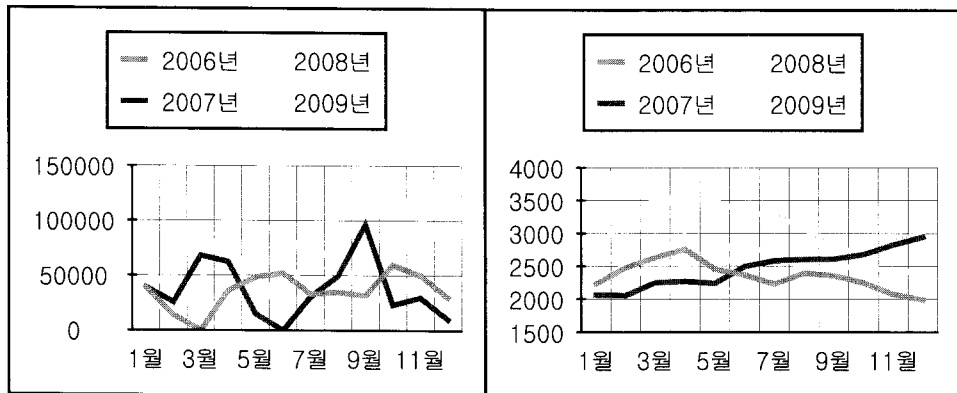
2009년 8월말까지 산란종계의 입식현황은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한 362,968수이

다. 2010년의 산란종계로부터 생산되어지는 산란실용계의 생산잠재력을 볼 때 2009년 4분기 산란종계의 입식수수에 따라 결정되어 지겠지만 현재까지의 산란종계 현황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에 따라 2010년 초 계란 생산량은 다소 증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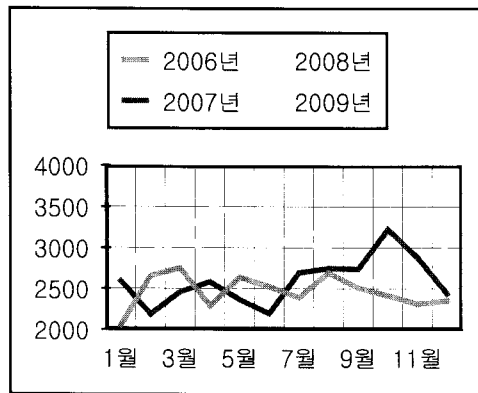
원활한 수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계절적 질병의 차단과 함께 노계의 도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09년과 동일하게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 2) 계란 수급 현황

2009년 8월 산란계사육수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하였으며(〈그림 4〉), 산란계종계의 입식수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하였다. 계란 가격의 경우 2009년 9월까지 전년대비 51원/개(특란, 서울기준) 상승되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계절적 영향으로 2010년 초까지 하향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에 입식되는 산란종계



〈그림 3〉 산란중계입식현황 및 산란실용계 생산 잠재력, 대한양계협회



〈그림 4〉 산란실용계 판매수, 대한양계협회

에서 생산되는 산란실용계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가담하는 하절기에는 계란가격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나 이는 산란중계의 입식수수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6월까지의 계란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8.35%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TNSWorld), 이는 육계와 마찬가지로 타축산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지고 있어 타축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09년에는 큰 질병의 발생이 없이 생산성이 유지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호흡기 질병

보다 세균성 질병의 발생이 다발하였다는 점에서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계군의 면역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질병을 최소화 하여 안전하고 상품성 있는 계란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 3. 원료가격 및 환율

2009년 환율 변동폭은 최고1,487원에서 최저1,240원(1~9월 월평균기준, 평균:1,330

원을 보였으며, 하반기 환율의 하향 안정세로 인해 배합사료의 가격이 몇 차례 인하됨으로 양계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었다. 2010년에는 약 1,130을 예상하고 있으며[삼성경제연구소] 이러한 환율 하락은 수입원료 가격이 다소 내려 갈 수 있는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원료가격의 구매단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율 하향안정세가 배합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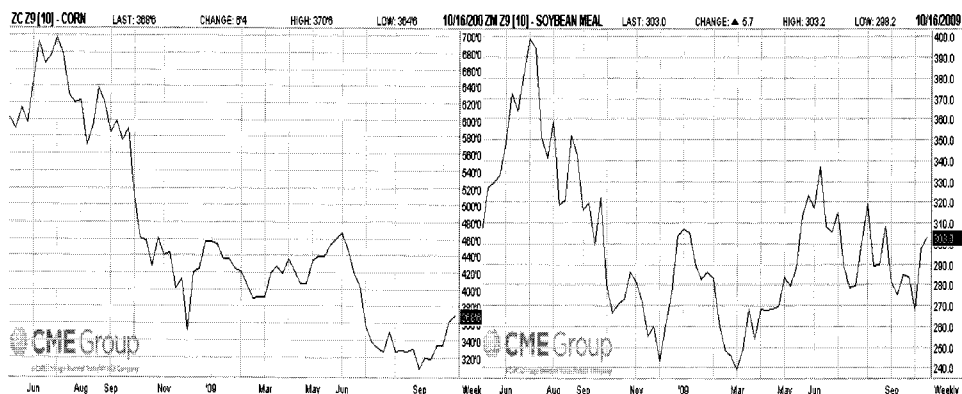
2009년 10월 현재 국제 옥수수 및 대두박의 가격추세는 <그림 5>와 같다. 이처럼 국제 곡물의 가격은 2009년 옥수수의 경우 연초 큰폭의 상승세에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에는 소폭 상승 후 전반기까지는 하향안정세가 예상된다. 대두박의 경우는 변동폭이 심한 한해를 지나고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전반기에도 유사한 시세패턴을 유지하며 소폭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배합사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가격은 2009년 보다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환율 및 수입을 위한 기타비용(해상운임)과 오일가격의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 결론

2010년의 양계산업은 국제적인 경제상황의 호전 및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2009년에 비해 성장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국제경제상황의 회복으로 인해 오일가격 및 해상운임 등의 상승이 이어질 경우 수입원료의 비용이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양계인들은 물론 관련 산업에서 제어 가능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외적인 요소의 호재를 극대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 할 것이다.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양계산업의 HACCP 인증 현황은 58개(2.8%) 정도로 나타나고 있



<그림 5> 국제 옥수수 및 대두박 가격동향, Chicago Board of Trade

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양계산물의 생산이라는 측면과 함께 HACCP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농장의 질병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료공장에서 도계 및 계란유통 부분에서의 HACCP가 사육단계에 까지 적용됨으로써 양계산물의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위해요소가 관리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

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양계산업의 수익과 연결된다는 점을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 2010년이 소비자로부터 양계산물의 가치를 인정받고 양계인의 수익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